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 지수 127p, 중고선가 지수 88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7p, 중고선가 지수는 88p로 전주와 동일함. 현대중공업이 대한해운으로부터 Shell 용선용 17.4만CBM급 LNG선 2척을 수주했고 납기는 2023년말까지라고 보도됨. 2020년 현재 전세계 누적 발주량은 331척으로 전년동기대비 -54% 감소한 상황이라고 보도됨. (Clarksons)

Clarksons lays bare OSV demand nightmare during pandemic

영국의 해운조사기관 Clarksons에 따르면, 시장 내 수요가 2019년 말 수준까지 회복하려면 18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Clarksons는 4월 수요가 2,200만bpd(barrel per day) 급감하며 OSV(Offshore Support Vessel) 시황이 2002년 수준보다도 악화됐다고 보도됨. Lockdown 일부 완화로 8월 수요는 소폭 회복되어 전년동기 대비 -790만bpd 감소한 수준으로 집계되었으나 시황의 완전한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도됨. (TradeWinds)

'Zero barrels conceivable': Venezuela oil output slumps to lowest level in decades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이 과거 수십년동안 기록하지 않았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도됨. OPEC의 감산기조, 자국 유전에 대한 비효율적 관리, COVID-19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의 요인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7월에는 일산 39.2만 bpd의 생산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됨. (Upstream)

New 'national champion': Abu Dhabi's NPCC and compatriot player merge

아랍에미리트의 National Petroleum Construction Company(NPCC)가 National Marine Dredging Company(NMDC)와 합병 진행 중이라고 보도됨. 합병회사는 오일, 가스, 해양 서비스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며 합병회사의 매출 규모는 2019년말 기준 24억달러규모라고 보도됨. (Upstream)

두산중, 2,000억원 규모 'PCHE' 시장 공략

두산중공업이 신시장 공략을 위해 대형 사이즈 인쇄회로 기판형 열교환기(PCHE) 상용화에 나선다고 보도됨. 외형성장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제품을 발굴해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보도됨. 다음달 중 대형 사이즈 PCHE를 제작할 수 있는 600t 고온 확산 접합로 설치를 완료하고, 1개월간 테스트를 진행한 뒤 10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보도됨. (파이낸셜뉴스)

한화시스템, 공정위 영업정지·입찰제한 취소소송 승소

한화시스템이 인수한 한화S&C의 과거 분할 전 벌점을 근거로 한화시스템에 제재를 가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됨.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에 대해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한 바 있음. (연합뉴스)